

숲속의 궁전!



예일예식장



* 예일만의 자랑

- 각층에 식당이 하나씩 있습니다.
- 완벽한 주차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00대 동시 주차시설)
- 예일이 직접 회관을 운영합니다.
- 셔틀버스를 무료운행 합니다.
(대공원후문 → 예식장 왕복)
- 다양한 드레스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 전문미용사를 두고 있습니다.

● 예약문의

453-2121
453-9871 ~ 5



성동구 구의동 58-16

월간여성 10월호(통권301호) / 1992년 10월 10일(매월 10일)발행 / 1964년 6월 13일 등록(서)라-7
1965년 2월 25일 제3종 우편물(나)인가(우편번호 140-013)

여성

특집 제29회 전국여성대회



1992
10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럭키자연풍, 왜 좋은가?

석유계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 파 올 레 핀 계)

진해서 헤프지 않습니다.

천연야자유로 만든 세정성분을
사용한 럭키 자연풍/
원료를 비교해 보고 선택하십시오.

석유계 원료인 알파올레핀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자연풍이야말로 피부에 자극이 적으며,
온가족이 먹는 과일이나 야채까지 안심하고
씻을 수 있는 식물성 고급 주방세제입니다.



훨씬 진해서 오래쓰는 럭키 자연풍/
거꾸로 들어보고 선택하십시오.

주방세제는 거꾸로 들어보고 선택하십시오.
작은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은
주방세제들과 달리 자연풍은 큰 기포가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혀 만큼 적은 양으로 많이 씻을 수 있고 그래서
오래쓰는 자연풍/
물은 주방세제로 레프게 쓰지 마십시오.

럭키 **자연풍**

월간 여성 월간여성 10월호 통권 301호

목 적 본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4 **女聲**
여성이 새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 김경오

특집 / 제29회 전국여성대회

6 **특집 ① 치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해오신... / 노태우 대통령

9 **특집 ② 축하**
공동 참여하고 공동 책임지는 사회 / 김갑현

10 **특집 ③ 회보**
제29회 전국여성대회 이모저모

15 **특집 ④ 수상자 프로필**
용신봉사상 수상자 · 올해의 여성 수상자

17 **특집 ⑤ 주제강연**
새 시대의 주역, 여성의 정치참여 / 손봉숙

25 **특집 ⑥ 발제강연**
여성의 표, 누구를 찍나 / 현종민
여성의 정치세력화 / 한정자
대통령과 대 여성공약 / 주준희

35 **특집 ⑦ 결의문**

36 **특집 ⑧ 건의문**

37 **기업탐방**
대졸여성 취업기회 대폭 확대한 삼성그룹

38 **매스컴에 비친 여성**
비윤리적, 폭력적인 내용의 외화탐정수사물

40 **우리들의 광장**

42 **협의회 소식**

44 **여성계 동향**



▶ 女聲

이 내용은 제29회 전국여성대회의 대회사입니다

여성이 새 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김경오 (본회 회장)

존경하는 노태우 대통령 각하!

그리고 전국에서 오신 여성지도자들과 내빈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의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회 주제가 "새 시대의 주역 여성의 정치참여"인데 지난 4년 8개월여 동안 우리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오셨으며 특히 이번에 「9.18 결단」을 통해 우리나라 선거제도 선진화를 위한 결정적 전기를 마련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아울러 활짝 열어주신 대통령께서 29회째 열리는 전국여성대회 사상 처음으로 친히 임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2천만 여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여성들은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빛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일들을 묵묵히 해 왔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고 사회를 부드럽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는 여성이 차별을 받고, 덜 중요한 존재로 취급된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여성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뒷전에서 일해온 여성에 대한 편견과 관습은 이를 어렵게 하고, 앞장서 일하는 여성에게 많은 장애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며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가로막는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정치력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우리 모두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예로됨, 관심사항,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고 대통령이 되어야 하며, 또한 이런 생각을 가진 여성 자신들이 많이 정계에 진출해야 합니다.

이번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도 보셨듯이 한국 여성은 금메달 12개 중에 6개를 따내어 국위 선양에 남성과 똑같이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수한 우리 여성이 2등 국민화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제 여성도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만큼의 몫을 찾아 권리와 의무를 똑같이 나누어 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에의 관심이 고조된 이 시기는 우리여성들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이 대회를 통해 여성이 정치세력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모색되고 우리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 여성이 새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제강연과 반제강연을 맡아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용신봉사상과 올해의 여성상을 수상하시는 두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여러가지 문제를 다함께 생각해 보고 전국의 여성 단체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하는 역할극 경연에 참가하시는 단체들의 노력을 치하드리며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국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관심으로 오늘 이 대회에 친히 참석하신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빈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대회의 규모가 매년 커나가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전국여성대회를 치루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전국 여성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특집

제29회 전국여성대회 - 새 시대의 주역, 여성의 정치참여 -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해오신 여성지도자 여러분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경오 회장, 전국의 여성지도자 여러분.

오늘, 전국의 여성지도자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제29회 전국여성대회가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또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여성지도자 여러분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

특히 많은 여성단체와 지도자 여러분이 그동안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과소비 추방, 환경보전, 에너지절약, 공명선거 풍토조성에 큰 성과를 거둔데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사회의 실질적인 기둥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말을 가끔 생각합니다.

한국여성의 우수성...아름답고 똑똑하고 강인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스포츠와 예술,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이를 실증해주는 많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우리 겨레의 끈기와 생명력은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강인함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급전 용신봉사상과 올해의 여성상을 받으신 두 여성지도자에게서 한국여성의 고귀한 사랑과 용기와 희생정신을 봅니다.

우리가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경제적 기적을 이루어 번영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는 이러한 우리 여성들의 저력이 그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성지도자 여러분,

여성은 이 나라와 사회를 움직이는 수레의 두바퀴중 하나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빠르게 전진해 나아가려면 남성과 여성

두바퀴의 크기가 같고, 똑같이 튼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 여성들이 맡은 역할은 양에서나 질에서 남성에 못지 않은 것이었으나 전통적인 인습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 활동은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여성의 역할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여성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여성들도 폭넓은 사회참여를 통하여 개인과 사회발전에 더욱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성이 지닌 잠재능력을 현실화하는 것은 국가사회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저해하거나 잠재역량의 개발을 막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라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과감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저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상대적으로 뒤진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다.

임기를 마무리해 가는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취임후 저는 여성관계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중앙과 지방에 일제히 신설하고, 또 보강했습니다.

중앙정부에 여성업무 전담하는 정부 제2장관실을 신설했고, 15개 시도에 가정복지국을, 276개 시·군·구에는 가정복지과를 설치했습니다.

정부2장관을 비롯하여 새로 만든 여성부서의 책임자는 모두 여성으로 임명토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여성 차별요인을 담고 있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러분이 오래동안 소망해오던 가족법의 개정도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육아문제를 지원하고자 많은 탁아소를 새로 세우고,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여 탁아소 설치와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습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고용을 폐지토록 했습니다.

정부가 이를 앞장서 실천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에서 남녀 구분 모집제도를 철폐함으로써 이제는 9급 공무원의 경우 여성이 과반수 이상 합격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 여성의 진출이 크게 늘고, 은행을 비롯한 기업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개선만으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여성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국민의 가치관속에 숨겨져 있는 성에 대한 모든 차별의식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가정과 학교에서, 직장과 사회 각 분야에서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지도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전국여성대회의 주제가 “새시대의 주역, 여성의 정치참여”라고 들었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 생각하며, 알차고 유익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유권자의 절반은 여성이고, 여성이 우리사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례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도가 그만큼 높아져야

한다는 것...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총선거가 있었지만 여성의 진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데 대해 저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폭넓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선거문화에 일대혁신이 일어나 정치풍토가 바뀌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미국의 한 저명한 여성 의원은 “여성들의 관심사가 바로 국민의 관심사”라고 했습니다. 정곡을 찌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정치의 주부의 장바구니를 걱정하고, 2세국민의 양육과 교육, 주택과 의료,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생각하는...그런 정치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실제 생활문제는 늘 정치권의 관심에서 뒷전으로 밀려 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40여년 헌정사를 통하여 우리 정치권이 늘 쟁점으로 삼아온 것은 정부의 정통성문제와 선거의 공정성등 민주주의의 형식과 절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6.29선언에서 비롯한 우리의 민주화는 수십년 우리 헌정사를 통해 늘 되풀이 되던 민주와 반민주의 구도를 해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선거의 공정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정치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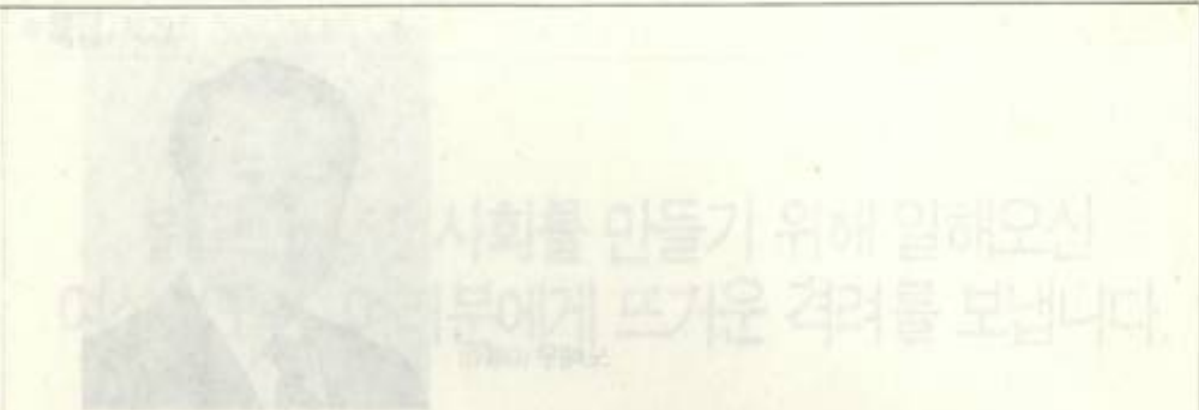
저는 지난 9월18일, 이러한 정치풍토를 쇄신하는 또 한 차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다시한번 6.29선언을 하는 심정으로 새로운 결단을 여러분에게 밝혔습니다.

오는 대통령 선거를 한점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게 치를 중립태도를 구성하고, 대통령도 엄정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당적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선거문화에 일대 혁신을 이루어 고질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만 우리의 정치가 진정 국민의 생활을 거



노태우 (대통령)



정하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정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내린 결단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민주정치가 진정 정책대결로 국민의 심판을 받는 선진형 정치로 발전해야만 여성의 정치 참여 환경도 확대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한 차원 더 높이 발전시키는 이 과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성지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세계 각국에서 많은 여성정치인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훌륭하게 봉사하는 것을 봅니다.

몇주전 청와대를 방문한 영국의 대처 전 총리는 "정치에서 발언권을 원한다면 남성에게 요구하라. 그러나 실권을 원한다면 여성에게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영국병을 치료하는 큰수술을 성공적으로 해냈던 대정치가다운 자신과 패기가 넘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처총리와 같은 훌륭한 여성정치인이 나와 우리 정치의 선진화를 이끌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여성지도자 여러분,

이제 21세기가 불과 8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세기에 우리나라가 통일된 선진국으로 세계사의 당당한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역량이 총결집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이 지닌 무한한 잠재력이 국가발전을 위하여 충분히 발휘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고 있는 정보화 혁명은 여성들이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개인의 능력이자 한 나라의 힘이 되는 정보화 시대... 굴뚝이 없는 후기 산업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여성계는 힘을 합쳐 여성들이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들 스스로가 남성과 대등한 역사창조의 주역이라는 사명감과 참여의식을 가지고 남성에 뒤지지 않는 역할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번 여성대회의 주제처럼 여성들이 "새시대의 주역"으로 큰 역할을 하는 시대를 열기 위하여 여성지도자 여러분이 더욱 지도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모 공동참여하고 공동책임지는 사회

김갑현 (정무2장관)



중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존경하는 대통령각하를 모시고 21세기를 목전에 둔 전국여성지도자들이 사명과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자 함께 모인 뜻있는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서울올림픽의 성화로 동서의 벽을 허물고 인류의 화합과 평화의 축제가 열렸던 이곳 잠실에서 제29회 전국여성대회를 개최하게 된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38년이란 긴 세월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또한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도모,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해오심으로 오늘을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힘을 모으고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마다 전국적인 대회를 개최해오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지도자 여러분께 크게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의 안과 밖에서 두가지의 큰 물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화와 국제화의 물결로서 우리의 역사의 흐름을 질적으로 크게 바뀌는 대변혁인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5년동안은, 우리에게 시련과 도전도 많았지만 우리나라 근세사에 엄청난 큰 발자취를 남긴 역사적인 기간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도자의 역량과, 국민의 슬기가 한차원 더 높은 발전으로 승화시키는 원동력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6공화국은 출범과 더불어 여성권익 향상을 위하여 많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여성발전의 신기원을 이룩하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신 여성지도자 여러분!

그동안 민주화와 북방정책의 대업을 꽃 피우시고 통일축전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시며 우리 2천2백만 여성의 지

위향상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각하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모두 함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십시오.

다가오는 21세기가 영광의 세기가 되기 위하여는 우리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과 사명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미래사회는 남녀가 실질적인 평등과 균평을 기초로 「공동참여」하고 「공동책임」지는 사회가 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여성들은 그동안 다져온 여성발전의 토대위에서 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하여 여성의 힘을 모으고 그 역할을 극대화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상하며 부지런한 우리 여성들이 대립과 갈등으로 호터진 나라 발전을 화합과 단결의 바늘로 꿰매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대의명분이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자신의 작은 희생과 봉사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단체 지도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의 뜻과 힘을 모아 밝은 가정, 건전한 사회 그리고 부강한 국가를 만드는데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국정에 바쁘신 가운데 특별히 귀한 시간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우리 여성들을 크게 격려해 주신 대통령 각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대하고 뜻있는 대회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김경오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과 실무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무궁한 성장과 발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29회 전국여성대회 이모저모

- ① 대통령의 치사
- ② 김갑현 정무2장관의 축사
- ③ 단체기 입장
- ④ 개회선언 - 정연심 대회 준비위원장
- ⑤ 대회사 - 김경오 회장
- ⑥ 제28회 웅신봉사상 시상
- ⑦ 제8회 올해의 여성 시상
- ⑧ 주제강연



- ⑨ 발제강연
- ⑩ 결의문 낭독 - 문경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 ⑪ 건의문 낭독 - 강홍자 (대전여협 회장)
- ⑫ 대회장 전경
- ⑬ 행사사진 전시
- ⑭ 참석자들의 결의·건의문을
채택하는 모습
- ⑮ 대통령, 단체장들과 악수
- ⑯ 행사 시작전 참석자들의 등록하는 모습



역할극 경연대회



- ① 여성과 성차별 - 우리시대 여성 콤플렉스 공청회: 부산여협
- ② 여성 투표는 이렇게: 대구여협
- ③ 과소비 추방, 외제물건 사용 안하기 「선물」: 경기도 여협
- ④ 자원재활용 - 어제와 내일 사이: 강원도 여협
- ⑤ 환경문제 - 청산리 벼매수아: 전북 여협
- ⑥ 내 대의 환경오염 후대의 눈물: 경북 여협
- ⑦ 사랑으로: 충북여협
- ⑧ 지구촌 여인들: 중앙부인회
- ⑨ 남북 통일, 그 날이 오면: 국제순공연합 전국여성회

●특집/제29회 전국여성대회 • 수상자 프로필

제28회 용신봉사상 수상자



성명: 김연순(金連順)
 생년월일: 1921. 1. 10(만 71세)
 본적: 인천시 북구 부평동 232번지
 주소: 오산시 가수동 90번지
 직업: 오산 성심동원 원장
 추천기관: 오산시청

학력 및 경력

- 1944 문성여중 졸업
- 1957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이사
- 1953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원장

수상 경력

- 1985 보건사회부장관 표창
- 1989 경기도 여성 대상

공적 사항

1. 전쟁고아 및 불우아동을 위한 부평고아원을 설립하여 29년간 1200여명을 자립시킴
2. 불우한 무위탁 및 영세민 가정의 정신박약 아동을 수용, 보호하여 교육 및 재활시키기 위해 정신박약아 보호시설인 성심동원을 설립함
3. 정신박약자의 재생을 위해 정신박약아 교육기관인 성심학교를 설립하여 특수교육을 시킴
4. 정신박약자들이 성장하여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자 가정갖기 사업을 함
5. 심신장애자의 자립을 위해 자립작업장을 설립하여 기술교육을 시킴
6. 성인정신박약자의 자활 및 집단거주를 위해 정신박약자 자립농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제8회 올해의 여성 수상자



성명: 김 소 원 (金素媛)
 생년월일: 1960. 1. 19. (만 33세)
 본적: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412-126
 주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 산호아파트 A-306
 직업: 제일은행 노조 여성부위원장
 추천기관: 전국금융노동조합

학력 및 경력

1978 상명사대부고 졸
 1984 국제대학 졸
 1977 제일은행 입사
 1990 현재 제일은행 노동조합 부위원장

수상경력

없음

공적사항

1. 은행계 최초로 여행원제도 폐지하여 여행원 전원을 행원으로 전직
2. 신규채용시 남녀 구분없이 모두 행원으로 채용 예정
3. 인사관리에서도 남녀구분 철폐
4. 이로써 제일은행 여행원 3000명은 남행원과 같은 수준의 직책수당, 호봉승급액을 지급받을 예정
5. 이는 29개 은행 8만여명 여행원에게 획기적인 파급 효과 기대

●특집/제29회 전국여성대회·주제강연

새 시대의 주역, 여성의 정치참여

우리 여성들은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앞을 내다보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시대의 주역」으로서의 임무에 도전해야 한다. 이 새로운 도전은 먼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장하는 일에서부터 열어가야 할 것이다.

1. 여성의 정치참여 왜 필요한가?

인간은 본래 남녀 차별없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과 관습에 따라 사회적 분업이 생겨나고 남녀의 역할에도 구분과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성에 따른 남녀의 구별은 자연의 뜻이 아니라 사회의 편의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관습에 따른 분업관계가 수천년을 내려오는 동안 역사적 사실을 이루고 전통을 형성하여 마침내 이것이 태초의 질서인양 잘못 인식되어 왔다. 여기에 도덕·윤리·법률 등이 뒷받침됨으로써 남녀관계는 지배와 복종의 차등관계로 규정지음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남녀간에 성의 차별없이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계를 이상으로 삼는다. 민주주의는 인간을 인간으로부터 갈라놓는 차별과 불평등을 시정하고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세계를 지향한다. 인간은 자신의 개성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을 때 가장 그리고 진정으로 자유롭고 책임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정의와 인간해방을 향한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변화와 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바람직한 변화에 대한 방향을 지도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의식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으로 이를 이끌어나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동시에 그러한 리더십을 따라서 행동하는 추종자들과 그들의 투쟁 및 운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진정한 리더십이 인간을 해방시켜,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고 민주화 운동이 이러한 가치를 구현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면 사회의 어느 집단보다도 인간 여성에게 있어 리더십

과 민주화운동은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들은 오랫동안 정치 및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지도하는 자'의 위치에 서기보다는 '지도받는 자'의 위치에 서왔다. 무엇이 여성들로 하여금 지배받는 자의 위치에 머물게 하는가? 여성은 선천적으로 리더십의 자질을 타고나지 못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어떤 제약요인이 있는가? 왜 여성도 '지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여성에게 있어 리더십은 왜 중요한가? '지도하는 자'가 되기 위한 선결조건은 무엇이며 '리더십'을 얻는 최선의 길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들은 정치권력에서 차별받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인 동시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투쟁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통으로 제기되는 물음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사회의 여성운동은 주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노력동원을 촉구하는데 모아져 왔다. 여성들도 남성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받는다든가 취업을 확대한다든가, 나아

가 동등한 법적 지위를 요구하는 선에서 여성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제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법적 내지 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된 셈이다. 지금부터는 확보된 기회와 권리들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더 많고 훌륭한 여성들이 정치사회의 지도자로 등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 사회의 자원배분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문제를 더 이상 여성 개인의 문제나 성적 대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전체의 문제요 국가발전의 과제이며, 민주화의 핵심적 요소임을 입증해 보여야 할 단계이다.

이제 여성들은 남성본위의 기존 사회질서를 변화시키고 개혁시켜 나갈 필요성에 대해 남성을 포함한 전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공감케 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이 스스로 그 지위와 역할에서 리더십을 얻는 길이 참절이다. 여성이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계속 배제되는 한, 평등한 인간됨을 추구하고자 하는 여성의 노력은 결실을 보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전국여성대회의 주제를 「새 시대의 주역, 여성의 정치참여」로 잡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2. 여성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지도자는 누구이며, 여성들은 얼마나 지도자의 지위에 올라 있는가? 지도자는 크게 나누어 공직을 가지고 추종자나 국민을 지도하는 소위 제도

권 지도자와 공직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추종자나 국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제도적 지도자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도자'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의 고위 정치인들이다. 이는 아마 이들이 국민을 포함하여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가장 강력한 지도력으로 표현되는 정치적 지위는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성 지향적이며, 남성 독점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규범적으로는 여성이 남성과 대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시민적 의무로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성이 공공문제에 관심을 갖거나 정치에 참여하여 대등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여성이 할 일이 아니라는 관례가 지배적이다.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아직까지도 「여성이 설 곳은 가정」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권력을 소유하거나 고위직에 오르지 않고서도 정치지도자가 되었거나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권력이나 공직을 전혀 바라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이 민간지도자이다. 여성들의 경우는 민간지도자로 여성운동이나 시민운동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공적 부분(public sector)이 민간 부분(private sector)보다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많은 여성들을 공적 부분의 지도자로 진출시켜서 사회가치의 배분이 남성 편중적 결정에 더욱 더 의존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성들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활동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대표성에 진출해 있는 여성의 비율은 불과 1% 내외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활동에 대한 여성의 기여는 당연히 받아들여지면서도 정치활동에 대한 여성의 진출은 아직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풍토이다. 역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이 점하는 비율은 평균 2%이며 현14대 국회는 평균치에도 미달하는 1%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난해 구성된 지방의회에도 여성의원은 광역, 기초의회 공히 0.9%를 점하는데 그쳤다. 행정부의 고위직에도 한 사람의 여성장관이 있을 뿐 5급이상은 1.5%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정당에도 정당원은 여성이 4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고위당직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여성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어떤 특정 성이든지 계급이든지 전체대표의 60% 이상을 점하면 거기엔 자연 독주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이다. 현대사회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정당이 결성되어 국민들의 이익을 집약해 줄 수 있고, 이들이 선거에 참여해서 대표로 선출된 후에 자신들을 맡겨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 주도록 하는 정치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로 자신들의 대표를 의회로 보내고 있으며 얼마나 활발하게 자신들의 의사를 정치권에 반영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원론적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나 적절한 채널이 없고, 의회에 대표를 내보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충실하게 대

변하게 할 수도 없다. 비록 다당제도가 허용되고 정기적으로 선거가 실시된다고 해도 지금까지 여성들이 정치지도자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은 거의 막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무엇이 여성의 진출을 가로막는가?

어느 나라에서나 여성은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도자의 남성편중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절대 다수의 여성이 '지도받는 자'의 입장에 위치해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도하는 자'의 위치로 올라서는 것을 제약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여성 '지도하는 자'의 위치에 오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부장제도를 들 수 있다. 가부장제도는 집에는 가장이 있어 가족 구성원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지배체제를 말한다. 가장은 연령의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남성이어야 하므로 자연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 내지는 억압체제로 나타난다. 산업화의 진전으로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사회에 나와서도 여성들은 여성의 고유(?)역할에 걸맞는 소위 여성직종에만 종사하도록 권장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여성은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비유하는 주부적 활동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생색나고 눈에 띄는 지도적 지위는 남성이 담당하고, 알아주지 않고 직위 없는 숨은 일은 여성이 담당한다. 또한 여성의 정치활동은 주로 자원봉사 활동을 통

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험은 여성으로 하여금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봉사 지향적인(service-oriented) 업무를 담당하게 만든다.

여성 '지도하는 자'가 되는 데 장애가 되는 또 다른 원인은 우리나라는 정치구조 자체가 이미 남성본위로 틀 지워져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의 정치과정을 추적해 보거나 정치인의 종원통로인 선거관행을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체는 지극히 권위주의적인 행태로 운영되고 있다. 정치권력은 남성중심의 소수 직업정치인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한국적 권력관계의 현실에서는 비공식적인 막후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중요한 정책일수록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정책결정 채널에 의존하기보다 핵심 지도층끼리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여 폐쇄적으로 결정한다. 여성들은 대체로 이러한 비공식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와 능력에 있어서 남성들에 비해 크게 불리한 위치에 있다.

정당체계에서 나타나는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행태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의 정당은 한 두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인물본위의 사당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우리나라 정당 정치인들의 행태는 남성본위 조직체의 전형과 같다. 보스중심의 계파간의 동지애는 호형호제로 얽혀 있어 여성들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지 않는다. 여성이 선거에서 당선률이 낮은 이유로 자금 및 조직상의 불이익이 자주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정당활동에서 오는 여성의 불리점과도 깊은 관계를 가진다.

여성이 직접 정치에 진출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공천받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치는 이권이 개입되어 있어 기업인들이 정치자금을 대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사업가들은 여성 정치인에게의 투자는 그 효과가 적다고 보기 때문에 여성정치인에게 투자가하기를 꺼린다. 더구나 현행 선거법이 규정하는 소선거구제는 여성의 진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선거가 과열양상을 띠는 데다 지역구관리에 따르는 정치자금이 적게는 월평균 2,3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당이 이만한 정치자금을 보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 지구당위원장이나 스스로 조달해야 하며 여기에 음성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처럼 한국 정치가 갖는 구조적인 부정부패의 문제와 선거법 및 제도상의 제약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배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여성 '지도하는 자'가 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은 사회, 문화적인 요인도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남녀평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남성중심의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의 여성에 대한 편견은 지금까지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오랜 역사를 통하여 남성은 공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여성은 사적인 영역에서 그 역할이 엄격히 분담되어 왔기 때문에 남녀 공히 공사영역을 구분하는데 익숙해져 왔다.

사회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성격 편견은 여성들에게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뿌리깊게 내면화 되었다. 따라서 여성들 스스로도 정치는 여성들이 설 자리가 아니라고 기피하도록 만들었

다. 여성이 정치를 하는 것은 여성답지 못하다는 식의 부정적인 태도를 여성 스스로가 자인한다. 이러한 스테레오 타입 여성상은 신문, 잡지, 텔레비전 등을 비롯한 각종 대중매체가 더욱 부채질하여 전통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여성을 여성화(?) 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사회화는 여성들조차 여성을 '지도하는 자'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여성을 대표로 선출하기를 주저하도록 만드는 자중지난을 초래하기도 한다.

4. 참여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성과 동등한 참여기회가 부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회 질서는 그렇지 못하다. 우선 사회가 여성을 정치지도자로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아무도 여성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도하는 자'의 지위에 여성이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관습이나 사고패턴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문화적인 변화를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되었던 각종 차별정책을 「개혁의 차원」에서 완전히 제거해 나가야 한다. 그 다음으로 여성을 지도자로 준비시켜야 한다. 여성을 지도자로 키우는 일은 여성 개개인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다. 정부와 전 사회가 앞장서서 국가사회발전을 위한 인력개발의 차원에서 여성지도자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여성계와 정부의 협력하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혁

여성들의 지도력을 길러 '지도하는 자'의 위치로 끌어 올리는 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정부와 정치권으로 하여금 여성도 정치적인 고위직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구조적인 개혁을 단행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선거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충원 경로의 하나이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충원방식에 대한 법과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유능하고 참신하나 경제력이 없는 후보자들, 특히 여성들이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선거부제의 채택, 선거공영제의 확대, 선거자금의 공개화 등 선거법의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당으로 하여금 여성정치인을 육성하고 밀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 정당차원에서는 지역구에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공천해 주는 정당공천 할당제를 한시적인 정책으로 채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여성을 여성국에만 한정 배치할 것이 아니라 고위당직에도 유능한 여성인사를 대폭 영입하는 등의 정책적 배려가 요망된다. 정당이 정책정당으로 발전하면 여성의 정당활동도 그만큼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정당이 몸싸움이나 하는 정치꾼들의 집합체로 머물러 있는 한 여성의 정당활동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임명직에도 여성의 진출이 신장되어야 한다. 정부 각 부처내의 치밀한

부서별 업무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각 부처의 업무가 남성만이 담당할 수 있는 일인지, 남녀 구별없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성에게 더 적합한 업무가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만약 특정 업무가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만약 특정 업무는 여성에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적어도 이들 부서에는 여성들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연구·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들이 실현되도록 하려면 여성들이 효과적인 압력단체를 구성하고 조직화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여성단체들로 하여금 친목단체 수준에서 머물게 하거나 두개의 상징적인 지위를 여성에게 할애하는 명목주의(tokenism)에 그쳐왔다. 우선 정부 부처부터 시작하여 각급 공공단체 및 사기업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비율의 직원은 무조건 여성으로 충원하는 할당제의 채택을 주장한다. 어느 특정 집단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존 원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부딪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가 지금까지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면서 오는 일시적인 능력의 차이를 할당제와 같은 특혜를 통해서 보상해주어 일정한 시일이 경과되면 폐지하는 이 제도는 오히려 평등의 원칙에 합당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이 과감한 제도적·법적 뒷받침을 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단 제도적인 개선이 확보되면 여성들은 여성이 정치를 담당하면 남성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여성정치인의 사례를 통하여 깨끗하고 도덕적이며 국민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people-oriented) 정치인 상을 부각시켜 권력추구(power-oriented)를 일삼는 기성 정치인들과 구별함으로써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해 낸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권위주의적이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과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성은 누구를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보다는 구성원들간에 서로 수평적으로 협조하고 조화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선호한다. 비단 공직뿐만 아니라 환경운동이나 시민운동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리더십도 사례연구 등은 통해 부각시킴으로써 여성의 리더십이 담당하는 몫과 덕성들을 부각시키고 키워나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도덕주의자요 평화를 더 사랑한다. 흔히 정치는 '더러운 직업'이라 일컫는다. 그만큼 정치에는 이권이 개입되고 부정부패가 따른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 정치를 담당하면 적어도 깨끗한 정부를 만들 수 있으며, 폭력과 전쟁을 배격하는 평화스런 정책을 추구할 것임을 내세움으로써 지도자로서의 여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 51%의 여성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표를 조직화하여 정치권에 압력집단으로 세력화할 수 있다면 여성의 정치참여는 훨씬 더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여성지도자의 수를 정책결정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은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치권이 제도적인 개선과 여성관련 정책을 기꺼이 채택할 수 있도록 여성계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

이 중요하다.

여성들이 남성 정치인에 의존하여 한 두개의 여성관련 장관직에 연연하는 한 개혁은 쉽게 오지 않는다. 여성의 정치참여 문제는 개혁의 부수적인 과제로서가 아니라 핵심적인 문제로 다루도록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을 촉구해야 할때이다. 언론매체나 교육을 통한 성차별 철폐운동도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정치하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의 냉소적 태도를 바꾸어 놓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정치는 목소리 크고 극성스러운 여성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입주부에서부터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직 여성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의 영역'이기도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널리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2) 교육·훈련 차원에서의 개혁

유능한 여성 정치인을 키우는 일은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여성정치 지도자 교육은 교육대상에 따라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시작하여 내실있는 교육훈련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대상별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우선 첫째로 후보자를 위한 교육을 들 수 있다. 정계에 아직 입문하지 않았으나 정계진출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비단 후보자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운동원까지 교육을 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선거를 치를 것인지를 후보자로서의 준비과정에서부터 지역의 선택, 자금모금 및 관리, 유권자 분석 및 득표전략, 대중연설, 이미지 관리, 홍보전략 등등에 이르기까지 전

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선거에 입후보할 때는 어떻게 여성들의 지지와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 여성이 여성을 찍지 않는다는 구실을 더이상 남성정치인들에게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여성후보자들이 흔히 부딪치는 일로 선거전에서의 흑색선전이나 인신공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따라야 한다. 흑색선전은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사회의 규범과 도덕을 때문에 특히 여성에게 치명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인신공격은 어떻게 다루고 어떤 부분은 무시하고 어떤 부분은 다시 공격자료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이미 정치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리더십 개발교육이 필요하다. 기존의 정치체제내에서 어떻게 적응하여 일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정부조직에서부터 의회운영에 이르기까지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이 필요하다. 의회로 진출했을 경우 법안을 검토하고 제안하는데 필요한 법률용어나 절차 및 자신이 제안한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략을 짜는 일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읽어야 할 수많은 법안이나 정보 가운데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가능하면 주어진 시간에 수많은 정보를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훈련시켜야 한다.

선거직에 당선되어 지도자가 된 경우에는 계속 지역구를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지역구민들과 정기적으로

대화할 기회를 가지고 지역의 우선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지지기반을 창출해내고 이 기반을 유지함은 물론 이를 확산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 자신을 앞장서서 지지해줄 여성단체나 사회단체들과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이들을 관리하고 그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일에도 힘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성정치인들은 대중매체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 현대는 대중매체의 시대이다. 특히 오늘의 정치선전은 텔레비전이 좌우한다고 할만큼 대중매체가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따라서 자신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 홍보할 수 있는지가 정치인으로서 성공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항상 자신이 대중매체의 초점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전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반대로 대중매체들이 여성정치인을 얼마나 다루는지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로 공직에서 물러난 여성들에 대한 후속교육도 필요하다. 이들은 오랜 공직생활에서의 귀중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하고 있다. 후진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다. 인재를 키우는 것이 어려운 만큼 이미 길러진 인재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공직에 진출해 있는 선배들이 자리를 같이 하여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교환하는 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훈련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선거에서 낙선한 지도자들은 다

음 기회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역구를 관리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교육되어야 한다.

여성단체를 포함한 민간사회단체는 개발되지 않은 무한한 인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각급 사회단체는 회원 확보에 힘쓰는 한편으로 회원들의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여 유능한 지도자를 발굴하고 양성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은 지도력 향상을 위한 의식교육을 비롯하여 현직에 있는 여성을 위한 보수교육, 지도자 연수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개의 민간사회단체는 재정적으로 열세한 상태에 있다. 지도자교육은 어느 한 두개의 사회단체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여성인력자원 개발의 측면에서 시설지원은 물론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성지도자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여성계나 시민단체들만으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하다. 여성계가 앞장서는 한편으로 정부나 기업체들도 교육·훈련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할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성지도자의 양성은 단순히 여성지도자 몇명을 더 배출한다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 및 국가발전을 위한 인력개발이라는 대승적차원에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3) 의식 차원에서의 개혁

여성들은 후천적인 사회화 과정으로 열등의식을 갖게된 것임을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의식화 운동은 잘 다듬어진 이론과 계획된 행동 프로그램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전개·

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여성들은 여성의 관심을 사회전반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때이다. 각종 사회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수용하고 때를 놓아나가는 일에도 동참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성운동만이 아니라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일, 소외받은 계층을 보살피는 일, 정의롭지 못한 것을 바로잡는 일 등 여성의 손길을 기다리는 일이 산적해 있다. 소비자보호운동, 환경보호운동, 지역사회활동, 공명선거실천운동, 자원봉사활동 등에 이르는 다양한 시민운동은 여성의 의식향상은 물론 여성들로 하여금 민간지도자로서 역할을 쌓아갈 수 있는 좋은 터전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민간차원에서 길러진 리더십을 제도권의 리더십으로 연결시키고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차원에서 길러진 유능한 지도자를 제도권에서 흡수하여 활용한다면 제도권 지도자의 수와 질도 그만큼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는 일상생활을 다루는 일이다. 정치는 여성들이 진출하여 일상생활에서 터득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임을 여성들에게는 물론 남성들에게도 널리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여성계는 여성이 여성을 지지하고 지도자로 선택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여성이 여성을 지지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적어도 선출직의 절반은 여성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여성계에서 운동의 차원으로 전개해야 할 일도 많다. 여성계는 51%의 여성유권자들을 정치의 영역에 건설

적으로 이끌어내고 이들의 표를 조직화하여 여성의 「정치적 힘」을 창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투표는 가장 중요한 정치참여 형태중의 하나이므로 투표에 활발히 참여하고, 여성 투표를 블록화(voting bloc)하는 일이 중요하다. 여성입후보자를 공공연히 지지하고, 모금운동을 벌이고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당선시키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것이 막강한 여성의 힘을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종래 여성에게 부과된 역할이 여성으로 하여금 「지도하는 자」보다는 「지도받는 자」의 위치에 머물게 했기 때문에 여성이 적정수의 「지도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여성지도자를 배출하여 여성도 「지도하는 자」의 그룹에 대등하게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여성의 「리더십」을 구축해 나가고 이렇게 구축된 「리더십」을 통하여 성의 차별없는 참다운 인류 복지사회를 건설해 나갈 때라고 생각한다.

5. 새시대는 여성의 리더십을 요구한다.

우리는 곧 21세기를 맞이하게 된다. 21세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여성문제에서도 큰 변화가 올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1세기에 예상되는 성의 정치(gender politics)는 각 분야에 두드러진 리더십을 갖춘 여성들을 요구할 것이다.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도 눈에 띄게 신장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해줄만한 몇가지 근거를

들어보자.

첫째로 다가올 미래사회에서는 일상생활사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정치가 이데올로기나 제도의 문제로 일관해 왔다면 앞으로의 정치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주고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생활정치체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미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에서도 후보가 「생활정치」를 공약으로 표방하고 있지 않는가?

그동안 지속되어온 성장위주 경제정책은 국민들에게 물질적인 부와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생활환경이 파괴화되는 부작용을 수반하기도 했다. 이제는 단순히 「먹고사는 생존권」의 문제가 아니라 공해로 인해 잘사느냐 못사느냐 하는 삶의 질의 문제로 점차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쓰레기수거 등 환경문제가 더불어 보건, 사회복지등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생활사가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할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정부의 기능이 복잡해 질수록 정치인들의 입법활동 및 정치활동에도 전문성이 요청된다. 일상생활사가 정치화되면 여성은 자연스레 남성에 뒤지지 않는 정치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생활정치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생활정치의 제문제들은 바로 여성들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성들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체험하고 터득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제 막 시작된 지방자치정착이 정착되어 나간다면 생활행정을 다루는 지방의회를 통하여 여성

의 정치참여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둘째로 미래사회에는 현재와 같이 불균형된 정치적 대표성이 그대로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정치는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다시피 되어 왔다. 그러나 정치가 더이상 특정계층이나 남성들만의 독점영역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 이제 우리사회도 그간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사회저변으로부터 확산되어 가고 있다. 노동자, 농어민, 청년층, 여성 등 지금까지 소외되어온 사회 세력들이 적정수준의 대표를 보내고 이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게 될 때 대표성의 위기도 극복되고 정의롭고 조화로운 사회질서가 수립될 것이다. 여성의 대표성도 이와 병행하여 그 양과 질에 있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셋째로 이제 민주화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만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권은 물론 전세계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앞으로 민주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의 정치관행이나 정책결정 과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개방되고 민주적인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정치과정이 공개되고 민주화되면 정치가 더이상 비공식적인 채널과 사적 관계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여성들이 정치의 장에서 소외된 것도 남성중심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정치과정에 크게 기인해 왔다. 중요한 정책 결정이 밀실이나 안가나 아니라 국회의사당이나 국무회의실에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정치의 장이 더이상 여성에게 불리할 이유가 없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로 냉전구조의 와해와 남북대화 진전은 우리에게 남북통일의 새 시대를 예고해 주고 있다. 분단된 민족을 하나로 묶는 작업에 여성들의 동참은 필수적이다. 남북통일의 과제는 남성들의 전유물일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대화 과정에 여성들도 대표로 참여시키고 여성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의 뒤처진 정치적 지위를 최대한으로 확보해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통일된 민주화시대에는 성이나 계급 등 인간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이러한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 여성의 균등한 참여를 보장할 때이다.

이제 여성들은 변화하는 시대, 새시대의 주역으로 살고자 한다. 여성들은 더이상 누가 누구에게 종속당하는 그리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불평등한 인간관계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여성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지 지배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지도자란 집단 행동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다. 특히 정치지도자 (political leader)란 정치공동체의 활동에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러한 이러한 행위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자이다. 지금까지 리더십은 대체로 권력을 위한 리더십 (leadership for power)이었으며, 이 때문에 정치란 마치 본질적으로 권력을 추구해야 하는 행위인 것처럼 이해되어 왔다. 그럴수록 여성은 정치의 장에서 배제되어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리더십은 때로는 권력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행사되어 왔으며 또 행사될 수 있고 장차는 더욱 더 그렇게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적어도 리더십을 단순히 권력을 추구하고 행사하는 차원에 머물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성들은 '지도받는 자'들과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지도하는 자'와 '지도받는 자'들이 다같이 행복하고 잘살게 되는 방향으로 정치상황을 진단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이 우리사회의 지도자 그룹으로 거듭나는 일은 미래사회의 요청이요 여성의 임무이다.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여성이 넘어야 할 벽이 높다. 우선은 이 벽을 깨뜨리는데 여성들이 힘을 모으고 지도자들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 개혁을 주저하는 자에게는 희망도 발전도 있을 수 없다. 21세기는 새로운 「성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시대로 열어가야 한다. 우리 여성들은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앞을 내다보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시대의 주역」으로서의 임무에 도전해야 한다. 이 새로운 도전은 먼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장하는 일에서부터 열어가야 할 것이다. ♣

여성의 표, 누구를 찍나

여성유권자들은 그들 스스로를 위한 제도개선의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의식개혁운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선거 때마다 여성의 권익을 위한 후보자 선택으로 투표권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은 투표를 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를 해야 한다. 정치참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때마다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정치지식이 많지 않아 누구를 찍어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돕는 활동을 하는 것이 사회단체이고, 정치정당이 다. 오늘 여기에 모인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회원들의 정치참여를 잘 지도해 줄 필요가 있다.

개인은 정치에 관심이 있으나 지식이 없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투표를 하고 누구를 찍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어떻게 민주사회 시민의 자질을 지켜 나가며 투표를 올바르게 하여 자신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사회단체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고 본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의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자리에서 중요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문제가 여성의 문제일 경



현종민 (경북대 교수, 정치학)

우에 여성들은 투표를 통하여 어떻게 여성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지 궁금하기가 짝이 없다. 여성은 남성과 똑같은 입장에서 사회를 위해 공헌하고 있으나 그 대우에 있어 남성보다 못하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의 정치풍토가 여성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남성보다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대우를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대우는 여성들의 자질을 크게 향상시키지 못하게 한다. 그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어떻게 민

주시민으로서 투표를 통한 정치참여를 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여성표 누구를 찍어야 하나」의 문제로 선거 때마다 여성 자신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다.

여성표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하나?

민주시민이 투표를 할 때는 세가지 측면에서 투표의 기준을 삼는다. 첫째는 후보자의 지도력과 그 후보자의 자질을 생각하게 된다. 후보자가 나에게 매력있는 사람일까 또는 나의 관심을 잘 대변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둘째는 정당인식이다. 투표를 하기도 하지만 좀더 정치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후보자 중심보다 나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정당이 있는가 여부를 보아 사람보다 정당의 정책이나 정당의 정치성향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하게 된다. 왜냐하면 후보자의 자질이나 성격은 각양각색이나 정당의 입장은 선거 때마다 항상 어떤 성향과 선호도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정치세력화

「여성의 정치세력화」란 보다 많은 여성들을 정치적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여성의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것이며, 여성에게 불리한 기존의 결정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한정자 (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원)

1.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중요성

현대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치적인 영향력의 확대이다.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여성들은 지금까지 사회의 물질적 정신적 자원에 접근하고 이용하며 배분하는 정치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다.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선택과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결정은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적이라 할 수 없다.

이제 여성은 더 이상 여성의 삶을 결정하는 일에 구경꾼이나 방관자일 수만은 없다. 인류의 발전 과정에서 여성은 자신의 발전 뿐만 아니라 전체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적 역할을 담당할 때이다. 지난 30여년간 여성들은 교육, 고용 및 법적지위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여성의 교육수준은 1990년 현재 국민학교 취학률 100%, 중학교 진학률 99.5%(남자 99.7%), 고등학교 진학률 88.1%(남자 94.5%)로 상당히 향상되었고 남

녀간의 차이도 좁아지고 있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 역시 1990년 현재 46.5%('60년 26.8%)로 상당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법적지위 면에서도 가족법 개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마련으로 괄목할만한 제도적 개선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여성교육 및 취업률의 증가, 법적지위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대부분은 단순반복적인 생산직·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하위직에 집중되어 있고, 임금·승진차별을 비롯한 다양한 고용

차별을 받고 있다.

여성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보더라도 '90년 현재 여성조합원 수는 53만명으로 전체의 27.4%를 차지하나, 여성지도자는 극소수로 8,000여개 단위노조 중 여성위원장은 198명 뿐이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여성은 전체 공무원의 23.7%를 차지하지만 최하위직 9급에 22.6%가 집중되어 있고 5급 이상은 0.5%에 불과하다.

여성 정치지도자를 보더라도 지방자치제의 기초의회 의원 4,304명중 40명, 광역의회 의원 866명중 8명으로 0.9% 수준에 불과하다. 14대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 299명 중 3명(전국구)으로 1%에 머물고 있다.

이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곧 여성의 지위향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불행히도 여성들은 정치영역에서 여전히 '눈에 띄이지 않는 소수'로 남아 있다. 이처럼 열악한 여성의 정치적 지위에 대해 미국의 저명한 한국학자 브룩스 커밍즈(B. Cumings)는 "한국여성은 중동지역의 여성을 제외하고는 가장 가부장적인 정치구조하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현대 서구여성

세계는 선거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후보간, 정당간의 정치이슈와 정책이다. 요사이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인권이나 우리들에게 관심밖의 문제를 다루게 되면 사람들은 그 후보자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경제생활에 필요한 시장 가격이나 우리가 지금 열망하고 있는 남북통일, 여성지위에 관한 문제같은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거기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는 후보자가 유권자의 관심을 끌게 된다. 이러한 세가지 요소를 보면서 시민 개개인은 누구에게 투표를 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하게 된다.

여성표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위와 같은 투표의 주안점을 가지고 어떻게 투표를 하여 현재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유권자들은 생각한다. 우선 투표를 한다는 것은 찬성후보자를 뽑아줄 수 있는 가능성과 반대하는 후보자를 낙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반반인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투표행위는 곧 제도개선을 가능하게 한다. 여성이 하나의 사회계층으로 제도적인 차별을 받을 경우 이러한 차별을 초래하는 내용들을 투표를 통해서 개선할 수가 있다.

제도가 개선되면 사람들의 의식구조도 바뀌어진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만일 흑인인권을 위한 제도개선이 없었다면 평등권에 대한 미국 국민의 의식변화가 과거 30년 동안에 그만큼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내의 소수민족을 위한 사회적 개선이 이루어졌던 것도 제도개선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은 하나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예를 들면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가 개선되면 그 제도를 가지고 여성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이 여성들의 입장을 평등하게 해주는 의식개혁운동이 반복되면서 모든 불평등한 관계가 정리된다.

투표는 전통적으로 정권교체를 전제로 한 것이다. 정치참여를 통한 정권교체는 남성유권자처럼 여성유권자에게도 고유의 권한이다. 즉 투표는 모든 민주시민의 권한이고 권리행사이다. 이러한 투표행위를 통해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유권자들은 그들 스스로를 위한 제도개선의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의식개혁운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선거 때마다 여성의 권익을 위한 후보자 선택으로 투표권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여성표 누구를 찍어야 하나?

여성유권자는 역사적으로 사회적인 불평등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으로도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성단체의 운동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단체는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여성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의식개혁운동을 보다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오늘의 모임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러므로 여성표는 여성운동의 방향을 이해하는 사람, 여성할당제를 제시하는 사람,

민주정치의 경륜이 있는 사람을 찍어야 할 것이다.

모든 계층에 있는 여성의 표를 조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내용들이 쉽게 일상생활에서 행동의 지침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여성유권자들에게 쉬운 정치참여의 선택의 지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각 여성단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매 선거 때마다 여성유권자들이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투표를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

운동의 주요 슬로건은 「개인적인 것도 정치적이다」(The Personal is Political)이다. 이는 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영역에서조차도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남녀관계의 경우 지금까지는 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남성지배-여성종속의 '성의정치'(Sexual Politics)'가 이루어지고 있다. 남성지배-여성종속 구조는 국가간의 문화, 제도, 현실적 상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UN 여성지위위원회는 평등·발전·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주요수단으로 "정치참여와 정책결정에서 남녀간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국가의 우선 순위에도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여성이 정치적 자리에 나갈 때 여성을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도자적 지위에 있는 여성의 비율이 30%를 차지하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과 같은 국가들의 경우, 평등권, 여성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율권, 자녀양육의 권리, 성폭력에 대한 보호, 환경문제 및 소비자문제 등 오랫동안 정치영역에서 간과되어왔거나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문제들이 국가의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거나 정책결정에 반영되었다.

이처럼 여성이 중요한 다수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까지는 여성단체의 단합된 힘과 끈기있는 정치세력화 전략이 주요했기 때문이다. 여성의 정치적 지위가 향상되어야 사회적 경제적 법적 문화적 영역에서의 성차별이 개선될 수 있다.

「여성의 정치세력화」란 보다 많은

여성들을 정치적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여성의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것이며, 여성에게 불리한 기존의 결정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여성에게 유리한 결정을 지지하는 동조자(Feminist)를 후원하여 동조세력을 확대한 것이며, 사회 각 분야에서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고위직에 보다 많은 여성이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여성 정치참여 확대의 장애요인

정치영역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숫자가 증가할 때, 여성발전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유언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왜 여성정치인은 적은 것인가 그 원인을 밝혀보아야 할 것이다.

여성 정치인의 수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후보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성후보자가 수적으로 극히 적은 뿐만 아니라 당선자 역시 적다. 그 원인을 살펴보자.

첫째,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여성을 처음부터 정치적 영역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여성은 가사 및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사적영역에 적합하고, 남성은 정치 경제사회 등 공적영역에 적합하다고 봄으로써 남성역할과 여성역할을 이분화하고 있다.

1972년 미국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1%가 '집안 일은 여성이 하고 정치는 남성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답하였다. 여기서 자신의 영역을 가정이라고 믿는 여성들은 '남녀평등에 관해 회의적이며, 정치에 대

한 관심과 지식이 낮고, 선거 및 시민운동 참여율이 저조하며, 제반 정치적인 쟁점에 있어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윤리를 고수하려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2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강하게 남아 있다. 최근 우리나라 조사에서 '여성은 집안 일을 책임지고 정치는 남성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는데 대해 남자 45.2%, 여자 21.2%가 찬성을 표하고 있다.

둘째, 공사영역의 이분법에 근거한 성차별적 사회화의 결과 여성에 대한 정치사회화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여성은 어려서부터 암전하고 온순하며 순종적으로 키워진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보다는 타인의 의견에 동감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 보다는 타인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길들여진다. 봉사와 희생과 인내는 여성다움의 미덕으로 내면화된다. 여성은 어렸을 때부터 여성 정치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는 경우에도 바람직한 역할모델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회화의 결과 여성은 리더로서의 자질보다는 추종자로서 적합하도록 사회화된다. 정치가나 정책결정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나, 그런 지위는 여성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의 성차별적인 남성지배 문화는 능력있는 여성이 후보자로 등장하더라도 '여성은 정치에 부적합하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여성정치인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 영역에 등장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셋째, 기존의 정치제도 및 정당구조 때문이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을 불문하고 여성의 숫자가 1%에도

못 미치는 것은 정당의 공천과정과 선거구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먼저 정당차원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여성을 후보자로 내세우지 않는다. 정당은 여성인재를 기르지 않고 있고, 능력있는 여성이 있더라도 현재의 선거구제 하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한사람만 선출하는 까닭에 여성을 후보자로 공천할 생각과 때려와 용기를 갖고 있지 못하다.

각 정당은 남성 위주의 정당활동과 정치활동으로부터 여성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당내 남녀 구성비의 균형을 이루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네째, 여성을 위한 정치적 쟁점의 부재 때문이다. 오늘날 서구사회에서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적 쟁점을 보면, 남녀 평등권법안, 낙태의 권리, 취업여성의 자녀양육문제, 교육문제, 사회보장정책의 확대, 소비자문제, 환경문제 등이다. 이는 과거 국방문제나 외교문제 등에 정치적 관심이 집중되던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앞의 쟁점들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여성후보를 선호하여 표를 찍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문제해결에 여성후보자가 적임자라는 인식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성후보를 선택하고 지지할만한 정치적 이슈들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후보자들은 '무엇이 여성을 지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가'를 유권자들에게 확실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여성의 정치세력화 전략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목표는 보다 많은 여성들을 정치적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여성문제의 해결을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들이 단결하여 세력을 확대, 사회 각 분야에서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고위직에 보다 많은 여성을 진출시키는 것이며, 여성에게 유리한 결정을 지지하는 동조자(Feminist)를 지원하여 동조세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 전략을 살펴보자.

첫째, 여성단체는 연합하여 정당과 정부에 압력단체의 역할을 해야 한다.

외국의 성공한 예를 들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1982년 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 전략을 사용하여, 플로리다 주 상원의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을 2배로 늘리는데 성공하였다. 오늘날 플로리다주는 여성의원의 비율은 20.6%에 이르러 미국의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다.

노르웨이의 경우는 우리에게 보다 많은 시사점을 준다. 현재 노르웨이는 철저한 남녀평등주의자인 여성수상(G.H.브론트란트)이 두번째 임기를 맡고 있다. 내각 17명 가운데 7명이 여성이며, 여성의원의 비율은 34%에 이른다. 이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노르웨이 여성단체 연합'이 지속적으로 주도한 여성 정치세력화의 결과이다.

노르웨이 여성단체연합은 1967년 노동당 내각하의 선거에서 여성후보를 보다 많이 추천할 것을 건의하여, 여성 의원들의 비율을 5%미만에서 10%로 증가시켰다. 그러나 10%여성의원의 비율은 여성의 불평등 상황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대통령과 대 여성공약

현명한 대한민국의 여성들이여, 이번 선거에는 바람직한 여성정책을 취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던지자. 그 래야만 다음 대통령들도 여성의 권익을 정당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주준희 (이세ID)연립신학대학 교수, 정치학

여성이 원하는 대통령의 리더쉽 한나라의 권위의 정통성을 대표하는 대통령은 어떤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에 얽매이거나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보다는 나라 전체를 생각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비전을 향하여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쉽을 발휘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국민의 20%에 지나지 않는 50대 이상 남성의 이해뿐 아니라, 국민의 50%가 넘는 모든 여성의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한 때는 근대화과 경제발전의 비전이 강력한 권위주의적 대통령의 정통성의 기반이 된 적이 있었다. 민주화과정의 비용이라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의 후퇴를 가져온 리더쉽에 대한 정당화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함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선진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쉽으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대열에 올려 놓는 경제발전을 지속하면서 정치적 민주화를 발전시켜 가고, 나아가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잃어진 공동체를 회복하며 사회 성원 모두를 사랑으로 돌아보아 누구도 불공정하게 억눌리거나 차별

받거나 불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의를 실행해 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자면 그에게는 세계와 역사에 대한 깊고 폭넓은 이해와 아울러 민족을 혼란이나 퇴행이 아닌 발전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올바른 비전이 있어야 하며,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강인함과 결단력과 함께, 그의 마음에는 민족전체를 감싸 안을 수 있는 큰 사랑과 공의로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새 시대의 대통령이다. 우리는 투쟁과 모사에 능한 정치꾼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인물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를 갈망한다.

따라서 우리는 새 시대의 지도자가, 아직도 전통적 인습과 편견 속에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로서 권력의 남용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하는 여성에 대하여, 진정한 이해와 깊은 사랑을 가지고, 모든 여성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이 여성문제를 여성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여성에게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기를 기대한다.

여성정치참여확대의 중요성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여성의 정치참여문제이다. 그것은 과거의 정권이 법 제도면에서 남녀평등을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여성의 삶의 현장에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법제와 현실과의 괴리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의 대표가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사회적 제 가치를 여성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이 시절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단결된 압력을 행사하였음에도 남성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여성단체연합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1977년 국회의원 선거 후보추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구조적인 캠페인을 조직하였다. 여성들은 최종 목표를 '의회 여성의 비율 50%'에 두고, 모든 정당이 모든 조직 수준에서 여성에게 50%의 지분을 할당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각 정당의 여성정치가들은 소속정당의 보복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당의 여성들과 연합하여 여성의 정치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여성의원의 수를 24%까지 증가시켰다. 마침내 1983년 노동당은 모든 선거에서 여성이 최소한 40%를 차지해야만 하자는 것을 법령으로 선포하여,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러한 성공적 경험에 비추어 우리 여성단체들도 연합하여 정당과 정부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둘째, 여성단체는 여성의 정치사회화를 위한 의식화 교육을 주도해야 한다.

여성단체는 전국적인 단체 조직을 이용하여 여성의 정치의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여성에게 내면화된 성 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인식을 탈피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힘써야 한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정치적 자질을 기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셋째, 새로운 정치문화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남성 중심문화에서는 여성이 정치의

장에 등장하기는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이제 여성도 남성과 동등자적인 입장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 수 있도록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때이다. 전국적인 연설회와 대중대회를 이용하여 새로운 정치의식을 창조하고, 바람직한 여성정책을 홍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네째, 여성단체는 여성후보를 발굴, 양성,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선거 때마다 '여성 후보자 기금 현상'을 경험해왔다. 따라서 여성단체는 보다 많은 여성인재를 발굴하여 정치 후보자로 양성하여야 하며, 또한 정당에도 여성인재를 양성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여성후보의 지원체제로서 전국 여성단체가 '조직망(Networking)'을 구축하여 정치홍보, 정치자금 지원, 자원 활동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여성단체는 여성들의 일상생활과 단체활동을 통한 경험을 정치적 영역으로 이끌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여성후보에 적합한 새로운 정치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지금은 여성에게 새로운 정치전략이 요구되는 때다. 여성 후보들을 보다 많이 지지하도록 여성 후보에 적합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예컨대 도이당수가 이끌던 일본의 사회당은 소비자의 권리를 정치적 쟁점화하여 주부들의 표를 결집시켰고, 남성유권자들이 여성후보를 지지하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여성을 의회로 진출시켰다.

여섯째, 여성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동조자(Feminist)를 지원하여 동조세력을 확대해야 한다.

여성의 의회 진출이 제한된 현실을 고려할 때, 여성 편에 서서 여성발전

정책을 지지하는 남성 정치가를 지원하여야 한다. 한편, 남녀평등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가에 대해서는 선거에서 선택을 거부하는 연합된 힘을 보여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여성정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내각에 1/3을 여성으로 구성한다는 공약을 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미있는 다수인 20% 이상을 여성의원으로 확보한다고 천명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그럴 수 있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여성지도자들은 여성발전은 여성의 정치적 지위 향상이 우선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우리의 주장이 구호로서만이 아니라 현실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여성단체가 연합하여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겠다. ♣

법규범과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여성이 입법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모든 이상에도 불구하고 권력배분에 새로운 계층이 참가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다. 오랫동안 정치에서 소외되어 온 여성은 정치참여에 있어서 많은 핸디캡을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이 과감하게 그 동안의 불평등에 대한 보상조치로서 약자인 여성을 특히 보호하고 밀어주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정의롭고 공평한 일이다.

여성의 정치참여문제는 차기 대통령후보의 여성공약의 주요이슈가 될 전망이다. 6공의 경우 노태우 대통령은

1. 가족법 개정
 2. 남녀고용평등법 철저히 이행/육아휴직제도 등 모성보호정책 추진
 3. 모자복지법 제정
- 을 공약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실현되어 여성의 지위향상에 큰 공헌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공약이 여성정책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차기 대통령후보의 여성정치참여에 대한 태도

한편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992년 6월 삼당대표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 차기 대통령후보의 여성정책의 윤곽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 중 가장 구체적이고 개혁적인 여성정책안을 제시한 것은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이다. 그는 법과 제도를 고쳐서 여성의 지위를 "대폭" 향상시킬 것을 공약하고 특히 다음사항을 제시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실시에 대한 감독관 제도를 도입/고용차별로 인한 손해배상법 추가 제정
 2. 고위직 공무원에 여성비율 20% 보장
 3. 영유아법 개정
 4. 성폭행특별법 제정
 5. 가사노동평가제 도입,부부간의 증여세 폐지
 6. 대졸여성고용촉진법 제정
 7. 초중고의 전면급식 추진
 8.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위한 선거법 개정 추진
- 지방의회선거에 전체의석의 1/4을 비례대표로 하고 절반을 여성에게 배정(최소한 12.5%)
- 국회의원 선거에 전국구의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법개정 추진(33%, 즉60명 중 20명)
- 3~4명의 여성각료 임명(20명 중 15~20%)
- 민주당은 여성특위 위원장 이우정의원을 중심으로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당헌에 대의원 5명 중 4명 이하 청년 1명과 여성 1명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김후보는 또한 최고위원 2명과 5명 대의원중 한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하겠다고 공약했다.
- 그밖에도 민주당의 여성정책자료집은 6세 이하 유아녀 근로자에 대해 봉급의 5%를 육아수당으로 지급, 전농어민 자녀에 대한 교육비 전액 면제, 「농민의원」 부락단위 개설, 호주제도 폐지 등 획기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공약이 모두 실효를 거둔다면 여성계로서는 참으로 쌍수를 들어 환영할만한 일이다.
- 그러나 김대중 후보의 공약이 얼마

나 실현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공약을 실현할 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며, 과거의 행적을 볼 때 즉 여성정치참여의 경우 민주당 자체가 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여성국회의원을 단1명 진출시켰고 지방의회선거에서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공약의 진실성을 얼마나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점에 대해 김대중 후보는 과거에 여성후보가 유력한 지역에 공천되지 않은 것은 "우리당이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자인하였고, 후회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여성들이 여성정책 취하는 정당을 찍겠는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한편

-지방의회의원 및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에 20% 여성 일정비율할당제

-선거공영제, 중대선거구제, 선거자금의 공개화 등의 선거법 개정 등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해 보다 획기적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동 간담회에서 국민당 정주영 대표가 제시한 여성정책은 민주당 김대중 대표의 공약과 유사하다. 현시점에서 보다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기는 하나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1. 선거제도를 개정하여 선거공영제 도입
- 여성비례대표제 긍정적 검토
- 국회, 행정부, 정당의 고위직의 일정비율 여성에 할당
2. 남녀고용평등법 처벌규정 강화/모성보호강화
3. 세법개정: 상속, 증여세 면제
4. 농어촌 여성건강을 위한 특수시설

설치

모자가정의 취업, 주택배정, 전세금대여 등 법제화

- 탁아법 개정
5. 성폭력특별법 제정, 예방책 모색으로 근본적 해결
- 향락문화퇴치, 건전문화육성, 유치원부터 성도덕 교육
6. 정신대 및 태평양 전쟁 피해자 배상요구

국민당이 14대총선에서 어느 당보다도 많은 다섯명의 후보를 낸 것을 고려한다면 여성문제에 진보적이리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대중 대표에서 더 나아가 그는 선거공영제를 주장하고, 정당의 고위직의 일정비율을 추가하고 있으나 역시 그 비율을 밝히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국민당이 선거공영제를 주장하는 등 한편으로는 민주당보다 더 나아가 여성의 정치참여에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환영하며 일정비율 등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고무적인 공약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여성의 정치참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개혁은 신정당의 박찬종 대표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데, 그는 지난 6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초청연설에서 정부 각료의 25%를 여성에게 할당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철저한 선거공영제, 여성비례대표 할당제, 고위행정직에의 진출 보장들을 약속하고 있다. 이 또한 보다 구체적인 여성정책공약을 기대해 본다.

이에 비해 민주당의 김영삼 대통령 후보의 경우 현재로서는 가장 보수적이면서 조심성있는 접근을 하고 있어 아무리 그가 책임질 수 없는 공약은 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해도 여성계로

서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여협 초청 간담회에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방지특별법 제정
2. 세법 개정, 보완
3.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보완
4. 여성노동시장의 활성화, 고용확대, 모성보호를 위한 적극적 장려책
5. 이혼여성, 미혼모, 도시저소득여성 등 취약계층여성, 농어촌 여성, 노인복지정책 강화

이상은 아직 구체성이 없으며 민주당의 여성국은 민주당의 여성특위에 비해 단결된 추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리고 여성의 정치참여의 경우 취타제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채택할 수 없으며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도 여성의 정치참여가 저조함을 지적하면서, 여성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해결 문제라는 극히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여성계를 실망시켰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유교전통이 강하여 남아 여성문제에 보수적인 후진국인데 이러한 나라의 예를 들면서 "이 나라도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라고 하는것은 아무리 민주당이 여러면에서 자민당을 모델로 하고 있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의 30~40%가 여성인 스칸디나비아 국가나 10%를 상회하는 서독이나 대만, 가까운 북한이나 중국 등은 제쳐놓고 하필 일본의 여성정치참여를 들어 비교하는가. 전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이 15%인데 우리나라가 1%라고 하는 것은 기형적으로 낮고 후진적인 수치인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 동안의 성차별적 사회화에 의해 사회참여면에서 현

우리는 보다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여성정치참여 확대정책을 기대하며 촉구한다. 즉

1.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선거공영제 및 선거자금의 공개, 중대선거구제
2. 국회, 지방의회, 행정부, 정당의 각 수준에 20% 여성 일정비율 할당제의 도입이다.

제29회 전국여성대회 결의문

제29회 전국여성대회에 참가한 우리 여성 일동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민주시민으로서 진정한 정치발전과 여성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공명정대한 분위기 속에서 치뤄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공명선거 캠페인, 부정감시, 유권자 교육 등을 계속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해결의지를 지닌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14대 국회에 여성위원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적게 진출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여성 정치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민주가정을 이룩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1992. 10. 8.

제29회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일동

다움을 안고 있는 여성을 일정기간 우대조치하는 것은 과거의 불평등에 의한 겉을 줄이기 위해 지도자가 취해야할 조치임에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여성에게는 놀라운 길이다.

이러한 것은 여성유권자에 대한 경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후보는 토론에서 "여성유권자가 52%지만 막상 선거 때는 여성후보를 찍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사실과는 다른 오해 내지는 편견이다. 지난 지방의회선거와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10% 가량 여성후보를 더 지지한 것이 나타나고 있다.

김영삼 후보는 그러나 대처가 "영국의 병"을 고친 것처럼 자신이 "한국의 병"을 고치겠다고 하여, 여성정책의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 주었다. 여협과의 토의에서 그는 장관 몇사람, 부지사에 여성을 채용하고, "여러분이 놀랄만큼 대답하게 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서울시의 부시장 중 한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민주당 부대변인 중 한사람을 여성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우리는 그가 보다 더 여성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참여에 대해 적극적 이해와 의지를 보여주기기를 기대한다. 대처를 존중할 수 있게 한 것은 영국의 국민이고, 여성을 존중하는 그들의 문화이다. 후보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장려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국의 병을 치유하는 여성지도자들이 배출되도록 할 의사가 없는가.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간에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은 또한 학교급식 문제인데, 김영삼 후보는 예산문제로

실현불가능한 공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비해서, 김대중 후보는 33조원의 예산 중 공개입찰제로 국가사업에 개입된 부정을 없애고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만 확실히 거둬들여도 5조원 이상이 들어오므로, 급식 실시에는 5천억원을 마련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결론 및 제언

대통령이 여성문제에 대해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는 대한민국의 2천만 여성이 구시대적 차별과 억압에서 해방되어 인간다운 존엄성을 누리는 가나안을 향해 갈 것인가, 가지 못하고 오랫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인가 하는 것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다행히도 네명의 후보 중 세명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포함한 여성계의 여망을 반영하는 공약을 내걸고 있어 고무적이지만, 우리는 보다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여성정치참여확대정책을 기대하며 촉구한다. 즉

1. 선거법 개정예에 의한 선거 공영제 및 선거자금의 공개, 중대선거구제
2. 국회, 지방의회, 행정부, 정당의 각 수준에 20% 여성 일정비를 할당제의 도입이다.

또한 우리는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이 가장 중요한 과외임을 인식하면서 여성들이 자신의 권익을 깨닫고, 여성문제에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조치를 약속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물론 여·야성향, 인물선호도, 정당선호도와 정책선호도가 우선하는 경우도 많겠으나, 그래도 망설여진다면 여성정책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현명한 대한민국의 여성들이여, 이번 선거에는 바람직한 여성정책을 취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던지자. 그래야만 다음 대통령들도 여성의 권익을 정당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제는 법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향하여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이다. ♣

제29회 전국여성대회 건의문

제29회 전국여성대회에 참가한 우리 여성 일동은 여성의 정치 참여가 여성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의 절반인 여성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 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선거 공영제와 중·대 선거구를 채택하고 선거자금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균형있는 사회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회, 지방의회, 정부, 공공기업체, 정당 고위직의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할 것을 촉구한다.
- 정부는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한 인력 개발 차원에서 여성 정치 지도자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것을 건의한다.
- 정부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

1992. 10. 8.

제29회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일동

대졸여성 취업기회 대폭 확대한 삼성그룹



여대생의 취업기회가 대폭 확대된 획기적인 사원채용제도가 대기업에 처음 도입된다.

삼성그룹(회장 이건희)은 국내최초로 여성전문직제를 도입한데 이어, 올 가을 대졸사원 공개채용때부터 남녀 구분없이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사원을 선발하기로 했다.

국내의 대졸여성인력은 연간 6만4천명(91년)이 배출되고 있으나 이중 취업자수는 2만5천에 불과, 우리나라 고학력 인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인력이 실질적인 실업상태로 사장되고 있어 국가적인 자원의 낭비는 물론, 점차 사회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삼성의 조치는 여성인력 활용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엔 지금까지 매년 100여명 정도의 대졸 여사원을 공개채용, 특정분야에서 근무토록 한 것을 모든 분야에서 남녀가 대입시험처럼 공개적으로 경쟁을 시키기로 한 것이며, 더 나아가 채용후 직무배치와 승급, 승진 및 처우에서도 남녀구분을 없애는 등의 여성인력 육성방안을 수립, 여성최고경영자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매년 그룹 공개채용 인력의 경우 4%미만이던 여성인력이 앞으로 20%이상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희회장의 지시로 도입된 삼성의 채용제도는 21세기 초일류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력육성이 가장 큰 관

건이라고 보고, 고급 여성인력의 활용 측면에서 나온 것이다.

삼성은 최근 많은 기업들이 신규인력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인력육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올 하반기에는 남·여 대졸사원 총 2,65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92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여성전문직제에 이어선, 이미 「비서전문직」 50명을 공개채용, 3개월간의 전문교육을 이수시켜 전문비서로 양성하였고 현재 그룹내 최고경영층의 비서로 배치되어 전략적 참모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전문직을 추가, 비서전문직과 함께 150명 공개채용함으로써 고급여성인력의 사회진출기회를 확대하고 동시에 그들의 능력을 개발시켜, 전문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삼성은 앞으로 여성인력 특유의 섬세함과 창의력을 기업경영에 활용하기 위해 여성에 맞는 업무분야를 개발, 여성인력의 채용을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결혼은 물론, 정년 퇴직때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

비윤리적, 폭력적인 내용의 외화탐정수사물

요즘 세 TV방송사에서 경쟁적으로 방영하고 있는 「탐정 수사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외화들은 그 제목이 무색할 정도로 맛있게 심심한 줄거리 전개와 폭력적인 장면으로 TV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매스컴 모니터회는 9월29일 모임을 갖고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이었던 세 TV 방송사의 외화 탐정수사물 SBS '팜 스프링스 수사대' '당신은 탐정' KBS2 '탐정수첩' MBC '와이즈 가이'를 9월19일과 26일 방영 각 2회분을 모니터하여 그 내용을 토론했다. 시청자들은 국내에서 제작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만큼이나 미국의 시리즈물들에 익숙해져 있다. 그중 탐정 수사물은 그 내용이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여서 시청자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다. 오래 전의 '6백만불의 사나이' '소머즈' '형사 클롬보' '스타스키와 허치' 등에서부터 최근의 '맥가이버' '제시카의 추리극장' 까지 악을 물리치고 사건을 해결하는 다양한 종류의 수사물이 방영되었다. 하지만 요즘 세 TV 방송사에서 경쟁적으로 방영하고 있는 「탐정 수사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외화들은 그 제목이 무색할 정도로 맛있게 심심한 줄거리 전개와 폭력적인 장면으로 TV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황금시간대인 토요일 오후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모니터 결과 '팜 스프링스 수사대' '탐정수첩'은 탐정수사물에

대한 시청자의 기대에 못미치는 허술한 구성, '와이즈 가이' '당신은 탐정'은 비윤리적, 폭력적 내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방영시간 편성의 문제점

이들 네 프로그램의 방영시간은 모두 토요일로 KBS2 '탐정수첩' (오후 2:00-2:55), SBS '팜 스프링스 수사대' (오후 5:10-6:05), MBC '와이즈 가이' (오후 6:05-7:00), SBS '당신은 탐정' (오후 10:55-11:55)이다.

토요일 오후인 이 시간은 청소년들에게도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시간대로 청소년들에게 폭력, 마약, 섹스, 사치, 범죄모방 등의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되었다.

내용상의 문제점

내용상의 문제점들이 가장 심각하게 논의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폭력=섹스=마약의 등식으로 이루어지는 내용

SBS '당신은 탐정' 19일 「사랑의 착란」편에서는 경찰의 부인이 일부러 비디오 현탕으로 남편을 유인해서 정

부와 남편의 살인을 계획하고 비디오를 작동시켜 놓고 정사를 벌이고 결국 살아온 남편(경찰)이 정부를 다시 살해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부부생활과 퇴폐적인 애정행각, 당위성없는 살인 등이 극을 이끌어 나갔다. 또한 고문 장면에서는 돌아가는 전기톱이 목 가까이까지 가는 장면이 나왔고 천정에 깔려죽고 뱀에 물려 죽고 가스에 질식되어 죽는 등의 여러가지 살인 방법이 나열되어 방영되기도 하였다. MBC '와이즈 가이' 9월5일 방영편에서는 범죄소탕을 위하여 전과자로 위장하여 두목의 심복으로 들어가 있는 주인공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강간하려는 남자를 정당 방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살해하는 장면이 나왔으며, 등장인물의 난폭성을 '코를 골아서 죽여 버렸다.'는 등의 대사로 묘사하였다. 19일 방영편에서는 '주사 맞다 들켰어요' '헤로인 좋아하지' '한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등 마약에 관계된 대사가 자주 등장하였다. 또 이 날 마지막 장면은 조직 범죄단 두목이 전과자로 위장하여 심복 부하로 들어가 있는 주인공의 생일 선물로 주인공 조카의 살해범을 잡아 죽여서 머리에 리본을 묶어 '기분 좋

다'라는 말과 함께 주는 장면까지 있었다.

이렇게 대외에 걸쳐 잔인한 살인, 마약밀매, 정사장면이 속출해 인간경사 풍조와 선정성, 퇴폐성을 부추기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등장하는 여성은 거의 모두 정부(情夫) 아니면 정부 노릇을 하는 스파이로 설정되어 있어 여성을 도구화하고 비하하는 편향된 생각과, 범죄=섹스라는 고정관념적인 등식을 성립시키고 있다.

외국된 경찰의 이미지

이 외화들의 공통점을 들자면 범죄자보다 더 잔인하고 비도덕적인 경찰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사=범죄자이거나 마약거래자들과 타협하는 모습(19일 '당신은 탐정') 또는 그들을 협박하고 살인해버리는 권력 남용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19일 방영한 '탐정수첩'은 경찰서장이 폭력조직과 연관되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반대파를 제거한다는 내용이었으며 모든 사건이 경찰이 아닌 전역판사와 그의 보호 아래 있는 가식방 범죄자에 의해서 해결된다. 그 밖에 같은 경찰사이에서의 공격받기 경쟁, 연방수사국과 지방수사국간의 알력이 그려지고 있어 공인으로서의 경찰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도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허술한 구성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 프로그램은 제목은 모두 수사대나, 탐정이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성과 내용은 제목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팜 스프링스 수사대'는 아름다운 도시와 화려한 집을 배경으로 주인공 남녀의 외모상의 매력에만 초점을 맞

추고 있다. 12일 「기록의 미로」편에서는 사건에 침투되었던 여자 주인공이 충격으로 기억상실증이 되었다가는 끝날 때쯤 다시 기억을 회복하는 설득력 없는 전개를 보여주었고 19일 「대니의 모성에」편에서는 마약거래를 한 막대한 돈을 인디언 남매가 감추고 모자라는 듯해 보이는 마약 밀매단이 남매를 쫓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사건 해결을 위한 수사과정은 전혀없이 인디언과 마약 밀매단과의 대립에서 남매의 안전만이 해결되는 싱거운 결말을 보였다.

'당신은 탐정' 19일 방영분에서는 집중적으로 총탄을 맞은 사람이 방탄조끼를 입었다며 멀쩡하게 다시 나타나서 살인을 하는가 하면 '와이즈 가이' 26일 방영분에서는 여자 지방수사요원이 수사를 하거나 추리를 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는 모습은 없고 조직범죄단 일원의 한 고용인인 정부 노릇을 하여 정보를 얻는다는 식으로 그려졌다.

이러한 구성의 외화들은 시청자도 참여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미스터리 게임의 성격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탐정 수사물의 기본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스틸이나 박진감마저도 결여된 성격이 불분명한 시간 죽이기용 필름이라는 지적이었다.

기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가지 문제점에 덧붙여 수입외화의 선정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모니터한 탐정수사물의 주요소재인 사실탐정이라는 직업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직업이고, 이들이 경찰 신분인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 경찰 대신 무기를 휴대하여 사적인 감정으로 살인을 서슴지 않는 점 등은 우리의 상식으로서의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 질서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가치관, 윤리관이 전혀 걸리지 않은 채 등장하는데 서구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주로 담은 외화를 굳이 선정해 내보내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밖에도 수입한 외화를 검열, 편집하는 과정에서의 무성의함도 많이 드러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와이즈 가이' 9월5일 방영분에서 형사가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깨닫게 먹칠을 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26일 방영분에서는 수사요원이 고문하는 장면이 나오던 중 갑자기 필름이 끊기듯이 잘라 더욱 잔인한 추측을 하게끔 만들고 있었다. 이는 좀 더 정교하게 편집을 했더라면 크게 눈에 거슬리지 않게 처리할 수도 있었을텐데 안일하고 무성의한 편집태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범죄수법을 모방케하고 범죄심리를 부추기는 등 역작용을 일컫는다는 명분으로 '수사만장' '형사' 등 수사물을 전면 폐지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제작되는 수사물이 전무한 상태인데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좀더 치밀한 기획과 논리를 갖춘 탐정 수사물의 자체 제작으로 우리의 감정에 맞는 진정한 정의 구현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우 리 의 장 들 광

대한영양사회

'92 국제학술세미나 및 학술대회 성료

대한영양사회는 '92년 국제학술세미나 및 학술대회를 지난 9월22일에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동북아 3국(일본, 대만, 한국)의 식생활 현황과 지방섭취'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학술세미나는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대한영양사회 회원 및 내외빈, 식품영양학과 교수 및 학생 등 약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

조정순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 일본, 대만, 한국 역사의 각 나라의 식생활 현황과 지방섭취에 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의가 있었다.

이번 국제학술세미나는 일본, 대만, 한국 세 나라의 식생활 현황과 지방섭취에 대해 알아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논의되었으며, 식생활과 질병과의 관계는 연관이 있음을 지적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영양전문인인 영양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오후 2시30분부터는 '92년도 학술대회가 각 분과별로 나누어 개최

되었는데 이번 학술대회는 영양사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연구 및 사례 발표로 이루어져 영양사들이 바로 업무수행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행사였다.

'92 심포지움 개최

대한영양사회는 한국영양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9월 23일에 '21세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영양사업'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회원 및 내빈, 식품영양학과 교수 및 학생 등 약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본회 조정순 회장과 한국영양학회 채범석 회장의 개회사와 보건사회부 조병훈 보건국장의 치사로 시작되었다. 5시간 동안 진행된 심포지움에서 생활수준의 향상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보건영양사업의 중요성과 조속히 보건소의 영양사업이 수행되어야 함에 인식을 같이 하고,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중에서도 영양적인 요소가 배제되거나 영양전문인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 실시되어 효과를

우리들의 광장

거두지 못함이 지적되었다. 또한 보건영양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련 단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보건소 영양사 배치기준의 미흡함, 영양행정 전달부서가 없음 등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함이 논의되었다. 한편 영양전문인으로서 영양사가 담당하여야 할 보건영양사업으로는 지역주민 대상의 영양교육 활성화 및 영양교육자료 개발, 집단급식 시설의 급식관리 지도, 국민영양조사 실시 지도사업 등이 거론되었고, 보건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영양사의 고도의 전문적 지식 배양이 제안되었다.

국민영양조사 교육 실시

대한영양사회는 11월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 동안 보사부가 제수도 및 모든 섬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표본 추출한 1백개 지구의 2천가구를 대상으로 '92년도 국민영양 조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지난 9월18일, 19일에 걸쳐 각 시·도 책임자 및 실무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식품섭취와 식생활 조사를 담당할 영양조사원(200명)을 배출하였다.

국민영양 조사의 조사항목은 식품섭취조사, 식생활 조사, 건강조사 등의 3가지 내용이 포함되며, 본 조사는 매년 국민의 건강상태와 영양섭취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의 시책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92 노사관계연수 개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현장에서의 노사관계 갈등요인을 분석, 이해하고, 교섭실무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1992년도 노사관계연수'를 개최하였다.

지난 9월29~30일 양일간 1박2일 과정으로 성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열린 노사관계연수는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전국병원에서 간호관리자(사측)와 평간호사(노측)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제강연과 참가자들의 단체교섭,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속에 알찬 연수과정을 진행하였다. 간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사례 시상식에, 간협추천 4편 입상

건전생활실천 범여성운동연합과 정부장관(제2) 이 공동주관한 '92년 새질서 새생활 실천사례 공모 시상식 및 실천대회'가 지난 9월22일 류관순 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번 공모전에는 간협에서 8편을 추천하였는데 이중, ▲단체우수상: 일하며 사랑하며(서울대학교병원) ▲개인 우수상: 함께사는 세상을 위하여(소래가정의원 최수자 회원) ▲장려상: 관심과 미소의 방향(경남수정보건진료소 김연희 회원) 무엇을 했을까? (청주명학교 이화자 회원)로 총4편이 입상하였으며, 박정호 본회회장의 「우리의 다짐」 낭독이 있었다.

또한 밝고 따뜻한 건전사회 구현을 위해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에 꾸준히 참여해오고 있는 간협은 오는 10월30일, 강남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모유먹이기운동"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다. ◆



제29회 전국여성대회 성황리에 마쳐

본회는 지난 10월8일 올림픽공원내 제3체육관에서 '새 시대의 주역, 여성의 정치참여'라는 주제로 제29회 전국여성대회를 개최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여성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고 여성 스스로 정치세력화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특별히 노태우 대통령이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김갑현 정부2장관, 김정례 민자당 고문, 조경희 전 정부장관, 이윤자 전 국회의원, 권영자 여성개발원 원장등 전국의 여성지도자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본회의 회원단체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의 단제기 입장을 시작으로 한 개회식은 대회준비위원장인 정연심 부회장의 개회선언, 대회장인 김경오 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김갑현 정부2

장관의 축사, 제28회 용신봉사상·제8회 올해의 여성 시상식이 있었다. 시상식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의 치사로 개회식이 화려하게 마무리 되고 곧이어 주제 강연과 발제강연이 진행됐다.

주제강연은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이 맡아 여성정치 참여의 현주소와 그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발제강연에서는 현종민 경희대 정치학과교수, 한정자 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원, 주준희 아세아연합신학대 정치학과 교수가 '여성의 표, 누구를 찍나' '여성의 정치세력화' '대통령과 대 여성공약'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또한 진정한 정치발전과 여성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결의문과 건의문을 각각 채택했다.

점심식사후 2부에서는 여성정치참여문제 및 과소비 문제, 환경문제, 봉

일문제 등을 다룬 역할극 경연대회를 펼쳐, 전국의 여성단체들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우리 사회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다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대상은 '선물'이란 제목의 과소비문제를 풍자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에게 돌아갔다.

삼성그룹에 남녀차별철폐 인사제도에 대한 지지공문 띄워

삼성그룹이 올가을 대졸사원 공개 채용에서 남녀 구분없이 선발키로 한 것과 관련, 본회는 지난 10월12일 지지공문을 띄웠다.

삼성은 우리나라 대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직원의 채용, 승진, 대우에 있어 남녀차별을 완전폐지한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으며 이 같은 조치는 우리나라 고학력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여성인력이 사장되지 않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으로 앞으로의 여성고용구조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시찰

본회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시찰을 통해 전력사업을 이해하고 회원단체



간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각 회원단체 실무책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21일,22일 양일간에 걸쳐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시찰하고 간단히 경주시내를 관광했다.

용신봉사상· 올해의 여성 수상자 발표 및 기자회견

본회는 제28회 용신봉사상 및 1992년도 올해의 여성상 수상자 발표와 기자회견을 지난 10월1일 본회2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매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여성을 선정, 수여하는 용신봉사상에는 이번에 정선박약아 보호 및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는데 평생을 바친 성심동원의 원장 김연순씨가,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여성상을 구현한 여성에게 수여하는 92년 올해의 여성에는 국내 최초로 여행원제를 폐지하는데 기여한 제일은행의 노조 여성부위원장 김소원씨가 각각 선정됐다. ◆



여·성·계·동·향

서울시 공무원 시험 여성합격자 70%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남녀구분모집이 폐지되자 여성합격자가 대폭 늘었다.

서울시가 지난 8월말에 치른 제2회 7.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1천 8백38명 가운데 여성이 70%를 차지한 것으로 발표됐다.

이 비율은 지난 1회 시험 때의 60%보다는 10% 증가한 것이다.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합격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여성사회교육원, 일반인 여성학 강좌 열어

‘여성학의 저변확대’를 위한 여성사회교육 전문 단체인 <여성사회교육원(원장 이효재)>는 개원 9개월째를 맞아 ‘일반인을 위한 여성학 강좌’를 개설했다.

<여성사회교육원>은 여성한국사회연구회에서 교육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지난 1월에 독립한 여성사회교육 기관.

10월13일부터 시작된 일반인을 위한 여성학 강좌는 11월5일까지 매주 2번씩 4주간 계속된다. ‘여성학은 어떤 학문인가’를 시작으로 해서 여성의 법적 평등, 여성차별의 시작, 성과 사랑 등의 강의를 지은희(여성사회교육원 부원장), 조형(이화여대 교수), 손덕수(효성여대 교수), 김주숙(한신대 교수) 등이 맡는다. 대우재단빌딩 17층

강연실을 이용하며 수강료는 후원금에 해당하는 2만원.

보사부, 부녀복지 유공자 포상 문용익씨 등 32명

보건사회부는 9월18일 보사부 대회의실에서 제3회 부녀복지사업 유공자 포상식을 가졌다. 이 포상식은 보사부가 부녀복지 사업에 매진해온 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 행사.

보사부가 전국 15개 시·도와 71개 여성단체로부터 수상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한 올해의 수상자는 부산 마리아 모자원 문용익 원장(국민훈장 동백장), 대구 상록봉산단 노재교 단장(대통령 표창), 거제군 여성단체협의회 박성수 회장(대통령 표창)을 포함한 국민훈장, 국민포장 각 2명과 대통령 표창 4명, 국무총리 표창 7명, 보건사회부 장관 표창 17명 등 총 32명이다.

노동부 주부, 고령자 대상 무료 취업교육 호응 높아

노동부가 ‘가용 유희인력’에 대한 고용촉진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 <주부 및 중·고령자 고용 촉진 단기 적응 훈련>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훈련은 9월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의 훈련으로 건물시설 환경관리인으로 취업하기 위한 무료 단기 직업교육이었는데 신청자가 많아 60명

정원에 두배인 1백3명이 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 과정 참가자들은 경제적인 동기보다는 인생의 정리단계에서 사회봉사의 기회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훈련을 마치고 취업한 사람들 대부분은 대학 이상의 고학력 소지자들이고 전직 교장, 교감, 예비군 대령, 회사 사장 등 고위직 종사자들이 많았다.

이번 훈련을 맡았던 산업인력관리공단 측은 일자리를 원하는 고학력 정년퇴직자들과 일반 주부들의 호응이 높아 내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이며 주부들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직종에 대해서도 교육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효성여대 개교 40주년 세계여자대학 총장 심포지움

대구 효성여대(총장 박도식 신부)는 10월 개교 40주년을 맞아 ‘21세기로 향한 여자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계 여자대학 총장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오스틴 번치 미국 미시시피 여자대학교 총장, 헬레나 베니테즈 필리핀 여자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심포지움에 참석한 세계 여자대학 총장들은 성차별 사회에서는 여자대학이 여성의 리더십을 훈련하는데 더 나은 환경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여자대학도 변신해야 한다는 데에 공통된 의견을

여·성·계·동·향

을 모였다.

올해로 개교 40주년을 맞은 효성여대는 1953년에 설립된 지방 최초의 여자대학으로 59개 학과에 9천8백90명의 학생이 있는 대규모 여자 종합대학이다. 학생수에 있어서는 1만5천명이 넘는 이화여대 다음으로 많은 규모.

새 입시제도, 과외비 과중 우려 학부모연대 논단서 집중토론

94년부터 실시되는 새 대입제도와 관련해 고등학교 학습지도를 교과서 위주에서 탈피하라고 지시한 방침에 대해 학부모들과 교육학자들은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반대하고 있다.

9월25일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는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는 사교육비”라는 주제로 제12차 학부모논단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미나 교수(홍익대 교육학)는 “새 입시제도는 내신제 대비 과외, 본고사 대비 과외, 수능능력시험 대비 과외의 세가지 고액 과외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부의 새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토론 참가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여성신문 창간 4주년 맞아 ‘독자가 믿는 신문’ 다짐

88년 여성들의 국민주요 생거난 국

내 유일의 여성언론 전문지 <여성신문>이 10월14일로 창간 4주년을 맞았다. 여성신문은 지난 4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호도 거르지 않고 총 195호를 발간했으며 현재 전국에 14개의 지사가 있는 전국지로 성장했다. <여성신문>은 지면을 통해 여성을 의식화시키고 여성문제에 대한 대중적 지지기반을 쌓아왔으며 여성문제에 관한 정책수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여성계의 다양한 의견과 활동을 충실히 보도해왔다.

창간4주년제인 올해에는 서울 시내에 3개의 독자방 모임을 시작해 지역 여성운동의 기반을 다지고 성폭력 위기센터 설립기금 모금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여성신문사 이계경 사장은 창간4주년을 맞아 “앞으로 명실공히 독자가 믿고 독자가 사랑하고 독자가 이해하며 함께 키우는 신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육아휴직제 금융기관에서 가장 활발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신청하는 육아휴직제가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사업장은 금융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교육보험업종으로 전체의 95.7%가 육아휴직제를 운영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결과는 노동부가 육아휴직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여성근로자 3백인 이상 고용사업장 2백 50개소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에서 밝혀진 것이다.

조사 결과에 조사대상 사업자의 61%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88년 4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부터 92년 6월까지의 총 육아휴직건수중 80% 이상이 금융기관의 이용율이었다. 업종별 육아휴직 설치율은 금융, 보험, 사업서비스업(95.7%)가 가장 높았고 제조업(60.1%),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57.1%) 순이었다. 휴직기간은 1년이 (89%) 가장 많았고 6개월 이내, 6개월에서 1년, 2년 이상순으로 나타났다.

김보은씨 석방 면회 위해 청주 출퇴근

고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보은 씨가 10월2일 석방됐다. 김보은 씨의 석방은 집행유예가 선고될지라도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았던 피고인은 보석신청을 해야 석방될 수 있는데도 김 씨의 변호인들이 김진관 씨의 실행 선고에 반발해 상고할 의사를 밝히며 보석신청 절차를 밟지 않자 이순영 판사가 담당 판사의 재량권을 행사한 데 따른 것이다.

석방된 김보은 씨는 7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김진관 씨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석방되는 즉시 김진관 씨의 부모님을 찾아가 용서를 빌었으며 김진관 씨의 부모님은 “네 잘못이 아니니 너무 괴로워 말고 열심히 살라”고 김 씨를 격려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새간의 진관 씨와의 결혼설을 일축하고

친정엄마께 보약을 지어 보내다니,
고마워요! 여보.



막 저녁상을 보려던 참이었다.
따르릉...
"엄마! 오늘 김서방이 보약지어
왔더라!"
"네? 김서방이요? ...!!?"
평소엔 그렇게 무심하고 무뎠던
그이가 보약이라니 도대체 무슨
수가 있다. 아니, 그대들곤 어떤
저렇게 내색도 안하지? 자랑삼아
슬쩍 얘기라도 꺼내면 어디가
이때서. 어후, 정말 싱거운 사람.
목석같은 사람...

"여보 뭐하고 있어?"
어마나 내정신 좀 봐. 저녁상
차려다 말고 이게 무슨 투정이람.
하지만, 실은 이걸 투정이 아니라
감격이다. 코끝이 핏테지는
감동이라구...
여보, 고마워요. 늘 말은 없어도
누구보다 깊고 따뜻한 당산이
사실은 무척 든든했었다구요.
그래서 말인데요... 당신 보약은
제가 지어 드릴게요 네?

사랑과 신뢰의 기업
주식회사 미원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12월 10일 [여성]이벤트

편집후기

가을은 깊어지며 우리에게 얼만큼의 수확
을 준비했느냐고 묻는다. 준엄한 그 물음에
이~만큼이요 하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으
면 좋으련만.

드넓은 잠실벌에서 열린 제29회 전국여성
대회는 분명 우리여성에게는 하나의 수확
이었다. 매년 불어오는 참가자 수에 맞춰
경기장에서 열리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대
회사상 차움으로 대통령이 참석, 치사하신
것 그리고 멀리 지방에서 새벽 4~5시에 달
려온 많은 분들의 그 성의, 1·2부행사가 진
행되는 동안 사중 진지하고 뜨거웠던 분위
기 하며, 잊지 못할 축제였다.

월간여성 • 1992년 10월호 통권 301호
(매월 10일 발행)

● 발행 :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행인 : 김경호

편집인 : 김금래

인쇄처 : 코리아 헤럴드

사진식자 : 한리기

발행일자 : 1992년 10월 10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427, 428

☎ 793-5196, 794-4560,

796-4560, 797-5778

Fax : 796-4996

● 편집 : 출판공보위원회

위원장 : 조경순

위원 : 김희자 / 문현경 / 박금옥 /

서은경 / 신동식 / 오종자

담당 : 권수현

「여성」구독안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계 의견
수렴을 통한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비롯한 회원단체의 사업소
개 및 국내외의 여성계 동향, 전반적
인 사회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여성」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
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793-5196, 794-4560